

## 農家가 할수있는 豫防과 處置

이 순 우\*

### 중독(中毒)

사료급여를 잘못하여 불량발효를 일으켜 유독 산물이 발생되어 위장의 화학적상해를 일으켜 중독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타 독초나 농약 등을 잘못 급여하여 중독되는 경우도 있으나 낙농가로서는 그다지 많은 경우는 없다. 낙농가로서 주의하여야 될것은 주로 곰팡이다. 흔히 흰곰팡이, 푸른곰팡이 등은 별문제가 없으나 흑색곰팡이, 적색곰팡이는 위험하다고 한다.

푸른곰팡이는 특히 소에 좋지 않다. 혹은 곰팡이가 생긴것을 삶아서 급여하면 별문제가 안된다는 등의 지식이 보통 농가의 상식으로 통한다. 그러나 약간 곰팡이가 생긴것을 먹일수 없다고 한다면 농가에서는 소에 먹일것이 없다. 어떤 농가에서는 흑색곰팡이가 많이 생긴것을 급여해도 아무런 탈이 없었다고 하는 낙농가도 있다는 등의 반론이 있어 수의사가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건초의 곰팡이로 인한 집단중독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나 곰팡이가 생긴 사료는 전부 무해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전부 유해하다고 버릴것도 못된다.

어떤 종류의 곰팡이라도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초기에 유해물이 생산되고, 독력이 강한것, 약한것과 독성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과 독성이 빨리 없어지는 것이 있다. 된장등을 담구어서 성

숙되지 않는 것을 빨리 먹으면 배탈이 난다든가, 건초등은 60일 이상 두었다가 급여하기 시작하는 것이 상식이다. 추수한 직후의 새 벼짚은 위험하다든가, 콩깍지는 겨울을 지내고 난다음에 먹이라든가 하는것도 농가의 일상적인 상식이다. 크로바 등의 건초에 생기는 흑색곰팡이도 위험하다고 하나 발생후 20일 내지 10개월 이상되어 포자가 날라가는 정도가 되면 위험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고구마의 흑반병(黑斑病)에서도 고구마의 표면이 약간 썩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제거하고 사람이 먹고, 그 소량의 병피(病皮)를 소에 급여한 결과 심한 중독을 일으킨 일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완전히 썩은 고구마로서 사람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것을 썰어서 소에 먹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이론적으로 난처한 이야기가 되겠으나 문제는 그 고구마가 무독했다는 정도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썩은것을 먹이는 것은 일단 위험하다고 생각해야할 문제이다.

대량의 건초나 고구마 줄기, 콩깍지 등에 곰팡이가 약간 생겼다하여 간단히 버릴수도 없다. 잘 건조시키고, 1개월 이상되어 조금씩 시험적으로 먹이면서 문제가 없으면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중독을 예방할 수도 있고, 귀중한 사료의 낭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위험하게 생각하고, 약간의 곰팡이가 생긴것이니 빨리 먹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

\*대한수의사회

의하여야 할 것이다.

### 창상성위횡격막염(創傷性胃橫隔膜炎)

소가 바늘이나 못 등을 먹고 불치의 병이 되는 경우가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소가 못이나 철사조각 등이 입이 닿는 곳에 있으면 먹게 되어 위에 찢리게 되어 소가 신음하고 무거운 병에 걸리게 된다고 잘못 생각되는 경우가 많으며, 병이 조금 무거운 증세를 보이면 그와같은 철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고 축주로부터 흔히 질문받게 된다. 그러나 소는 철물을 좋아하지 않으며 소는 아무거나 대식을 하기 때문에 먹이에 섞여있는 철못이나, 철사조각을 가려내지 못하고 사료와 함께 잘못 먹어버리는 것이므로 이것은 관리자의 실수인 것이다.

고열이 계속된다거나 통증을 느끼는 일도 없으며 사람이나 소에서도 위장에는 화농을 일으키기 어려우며 위등에 찢려도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없다. 잘못되어 위내에 들어간 철사조각이나 못이 위밀에 가라앉아 제2위에 흡수된다. 제2위는 제1위보다 두텁고 별집과 같은 모양의 점막으로 되어 있어 이물을 여기에 저장한다. 그러나 먹은 철사조각이나 못이 길거나 하면 제2위는 적고 강하게 수축하는 작용을 함으로 위벽에 찢려서 다시 위벽을 뚫게 된다.

소의 배속에 세균에 오염된 철사조각이나 못등이 들어가면 복막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위는 자위수단으로 운동을 중지하고 철사조각이나 못의 주위에 선유소(線維素)가 둘러싸이게 된

다. 이것이 1일이나 2일 동안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동안 식체의 상태를 나타내며 먹지 않았던 소는 조금씩 사료를 먹기 시작한다. 철사조각이나 못에 찢린 부위는 선유소에 둘러 쌓였으므로 그대로 치유된 상태임으로 소의 원기는 그대로이나 그러나 제2위의 바로앞에는 횡격막이라는 가슴과의 경계를 이룬 막이 있어 심중팔구 철사조각이나 못은 그쪽으로 빠져 나오게 됨으로 선유소는 철사조각이나 못을 둘러쌓기 위해서 제2위와 횡격막을 연결하여 버리기 때문에 제2위가 유착된다. 제2위는 제1위의 내용물을 휘저어버릴 작용을 하게되면 횡격막에 걸려서 운동이 불가능하므로 먹은 사료는 안쪽에 막혀서 내려오지 못한다. 반추하는 사료는 적게되고 제3위, 제4위에는 조금밖에 가지 못한다. 따라서 먹지 못하는데 비해 배가 팽대하고, 배변은 적으며 딱딱하다. 그러나 불량사료나 과식을 한 것이 아니고 불량발효가 아니므로 냄새가 심한 배변이나 설사를 하는 일도 없으며 열이나거나 맥박이 빨라진다고 하는 일도 없다. 결국 먹이를 잘 먹지 않고 점차 쇠약해지고 털이 길어지며 윤택하지 않고 유량은 감소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철사조각이나 못이 찢린 날로부터 2일 정도는 열이 있거나 신음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때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다. 제1위를 누르면 딱딱한 먹이 덩어리를 감지할 수 있으며 손가락으로 누르면 들어간 곳이 원상으로 되든가, 손가락으로 누른곳이 그대로 지압의 흔적이 남아있거나 하게 된다. 그러면 만성 제1위 식체임을 쉽게 진단할 수 있다.